

■ 선진농업 현장 5 ■ 시골토끼농장 대표 김진욱 ■

# 품종개량·도축시설 확보로 브랜드화 추진

## 토끼요리 전문점 문열어 맛있는 요리개발 병행



주로 겨울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토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골토끼농장 김진욱(사진·47) 대표를 만났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3리 789-8번지에 위치한 시골토끼농장에서는 모두 1천마리의 토끼가 사육되고 있었다. 토끼는 가임기간이 1개월이며 45일간 젖을 먹이고 25일간 사료를 먹이고 나면 출하가 가능하다. 70일 단위로 1년에 4회 정도 출하가 가능하지만 여름철에서는 토끼고기 수요가 적어 겨울철에만 주로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김 대표는 "도축작업장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1년에 4회 출하가 가능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현행 범규상 도축작업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도축작업장을 신축하여 허가를 받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포천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토끼사육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농가에 큰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토끼

특히 포천에는 14개 토끼사육농가가 있으며 이들 14개 농가의 연합체인 포천백운토끼작목반(회장 김점수)을 중심으로 최근 토끼고기 전문점을 오픈했다.

여름철에도 토끼고기가 맛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동면 노곡2리(남유리)에 토끼요리 전문점 뽕가(토끼)를 지난 26일에 문을 열었다.

현재 김 대표가 사육하고 있는 토끼는 자이언트이며 토끼수입이 금지돼 있어 품종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계속 수정을

거쳐다 보면 토끼가 작아 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토끼의 품종을 개량하여 육질을 좋게 하면 건강보양식으로 토끼고기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토끼농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도축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와 토끼품종개량을 들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천시나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리개발도 중요하다고 한다. 요리개발을 위해 문을 연 토

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요리개발에 나서 이동면의 이동갈비처럼 많은 손님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매년 축산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토끼튀김을 만들어 시식회도 가져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한 경험으로 토끼요리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김 대표는 백화점등에 납품하고자 해도 검인 도장이 없어 납품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구나 도축이 가능하게 했지만 누구도 공동도축장을 시설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이들 농가에서는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돼지, 닭 등은 도축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토끼만 유독 도축시설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토끼도 지난 2002년7월부터 가축으로 인정받고 있어 도축장을 시설하고 맛있는 요리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 김 대표에게서 토끼농장의 희망을 읽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005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 꿈이 있는 농촌·농업을 우리 손으로



포천시는 26일 신북면 덕둔리 영관수련원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신북면 덕둔리 영관수련원에서 지역 농촌지도자회(회장 최지용)와 4-H연맹(회장 유재학), 생활개선회(회장 조금자)가 공동 주최하고 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시의회가 후원한 가운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포천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농업 및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비전 있는 지역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해외연수 및 우수경영사례 발표, 각 단체별 분임 활동, 문화체험활동,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포천중문의대 홍을표 사무처장이 '농업과 건강한 사회'라는 제목으로 농업과 자연치유의학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반스스포츠와 기계조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지친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 식전행사로 포천시생활개선회 우리가락연구부과의 '북의 합주' 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화합의 한마당'은 회원상호간 협동심과 일체감을 높였다.

박윤국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가진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돼 포천을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자족적 전원도시'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 농촌지도자회와 4-H연맹, 생활개선회는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연찬 교육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그리고 세계화·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출농업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포천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도시민 농사체험 위한 쌀사랑 교실

### 벼의 성장상태 확인 김매기 작업 실시



포천시는 지난 22일 도시소비자 40가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 쌀사랑 교실 참가자들이 김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2일 도시소비자 40가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벼를 제3회 차 쌀 사랑 교실을 개최했다.

소비자가 직접 모를 심고 수확해 보는 쌀 사랑 교실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휴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지난 5월 직접 모내기를 한 논에서 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김매기 작업 실시했다. 또 공기정화제에 좋은 황금사철, 천양금 등의 관엽식물로 화분을 만들어 생활원예실습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농업기술센터 잔디밭에서 는 승용이양기, 콤팩트, 트랙터, SS분무기 등의 농기계 작동시연 및 시승식이 열려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 어린이들은 관계자의 안전지도 아래 직접 농기계를 운전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부모들도 함께 농기계 시승체험에 참여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올 가을 열리는 4회차 마지막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낫으로 벼를 수확하는 체험을 하고 콤팩트 작업현장을 둘러본 뒤, 관인면 탄동리 쌀 가공센터를 방문해 벼가 쌀로 도정되는 과정을 견학한다. 또 인근 사과농장을 방문해 사과 따기 체험 행사에도 참여한다.

포천시는 참가 가족들에게 쌀 사랑 교실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직접 수확한 벼를 쌀로 도정해 전달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스스로 농사지는 쌀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중앙설비

# 보일러 설치, 난방시공 1중 면허 전문업체



대표 정남용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난방문화를 보급한다는 보람으로 산업용보일러, 급수펌프, 집진기, 각종배관설비, 소각로 제작설치, 연관공정공사, 화학배관공사, 버너수리 및 개조, 산업현장 임대보일러 등을 취급하며 17년 동안 외간만을 고집하며 한 우물을 파온 중앙설비(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9-5 대표:정남용)가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용보일러 생산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시공, 마무리까지 체계적이면서 철저한 관리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 대표는 "첨단기술시대에 살고있는 현 시점에 고객들은 평범한 제품보다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은 기본이며 주위에 여건,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갑작스러운 사태 발생 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의 긴급출동으로 신속하면서도 완벽한 마무리를 자랑하며 고객이 100% 믿음직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설비는 지난해 4월 위소재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겸비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이전하면서 "중앙설비"란 간판을 처음으로 걸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간판도 없이 다년간 이곳에서 정 대표의 얼굴과 기술력이 간판구실을 해오며 자사 이미지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오랜 세월동안 간판없이 중앙설비를 일선에서 경영해온 정 대표는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제작과정의 과학화로 산업용보일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7년 동안 외간만을 고집하며 양질의 산업용보일러를 생산해온 중앙설비는 기존의 보일러보

## 철저한 A/S를 위한 24시간 긴급대기 환경을 생각하는 보일러 생산에 적극

중앙설비는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유지공장, 제지공장, 섬유공장, 벽돌공장, 아파트와 시설재배 농가용 온수보일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작 공급하며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설비는 각종 산업용보일러 및 최신기계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해,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독특한 기술을 접목시켜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생산에 전 임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제품분야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산업용보일러는 고성능, 고효율, 고강도를 자랑하며 고객들이 제품의 진가를 먼저 알고 찾고 있다. 중앙설비는 제품에 대한 책임감과 고객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보일러를 생산한다는 일관된 목표에 무결점의 보일러 생산에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가 변하면서 보일러도 대량생산에서 소량 다품종 체계로 바뀌고 있는 점을 인식하며 신기술개발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경제성까지 겸비한 산업용보일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앙설비는 설계에서 제작,

다는 어느 장소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보일러,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보일러,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보일러 생산에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고객들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제품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확한 설계 시공, 마무리, 24시간 출동대기로 신속한 A/S를 자랑하는 중앙설비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확보와 완벽한 제품생산으로 관 내 산업용보일러 생산의 메카임이 자랑하다.

또한 산업용보일러 분야에서 쌓아온 정 대표의 신뢰와 신용은 중앙설비가 미래에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된 홈페이지(www.joongangbp.com)에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상담을 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중앙설비에서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보일러 사용으로 업체에서는 보다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Tel 031)533-2272, Fax 031)535-0422

정명백 기자 jpk61@paran.com



중앙설비는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유지공장, 제지공장, 섬유공장, 벽돌공장, 아파트와 시설재배 농가용 온수보일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작 공급하며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9-5에 위치한 중앙설비사(사진))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김시민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으로 각 층 면적을 15평(입)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내용을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다 하여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김시민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부분이 크나 작으나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①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한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

③ 계단의 경우  
통상 계단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도 3.4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④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크레인으로 절곡기 금형하판을 운반하던 중 협착사고

OO사공장내에서 절곡기에 부착된 금형하판(300kg)을 교체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태어난 금형하판을 적재대로 이동 후 금형을 내려 놓던 중 매달린 금형이 낙하하면서 금형에 협착돼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크레인으로 금형을 인양한 상태에서 낙하 위험구역인 금형 적재대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실시하여 중량물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중량물 권상기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미조치 한 것과 절곡기 작업 불량으로 작업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충격, 휨, 나사 체결 저하 등으로 중량물이 쉽게 이탈할 수 있었으며 1점 줄걸이 클램프 사용으로 중량물 낙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불시낙하를 대비하여 중량물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중량물(금형)을 클램프를 사용하여 운반 작업 시 쉘형 클램프를 사용해 힘이 누르는 힘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권상클램프를 사용해야 하며 클램프의 사용하중의 허용범위 내에 2개 이상의 클램프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